

범정부 ‘마약 특수본’ 설치... “청소년에 공급” 최대 무기징역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 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마약범죄에 공동대

응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이 너무 쉬게 구해지고 피싱범죄까지 확대돼 공갈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대두됐다. 국민과 학부모께서 우려와 불안이 큰 것으로 안다”며 “이번 특수본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수사와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특수본)’은 신 부장과 감감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에 앉히고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840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마약범죄는 개인 중독을 넘어 보이스 피싱과 결합하는 등 신종범죄로 발전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까지 등장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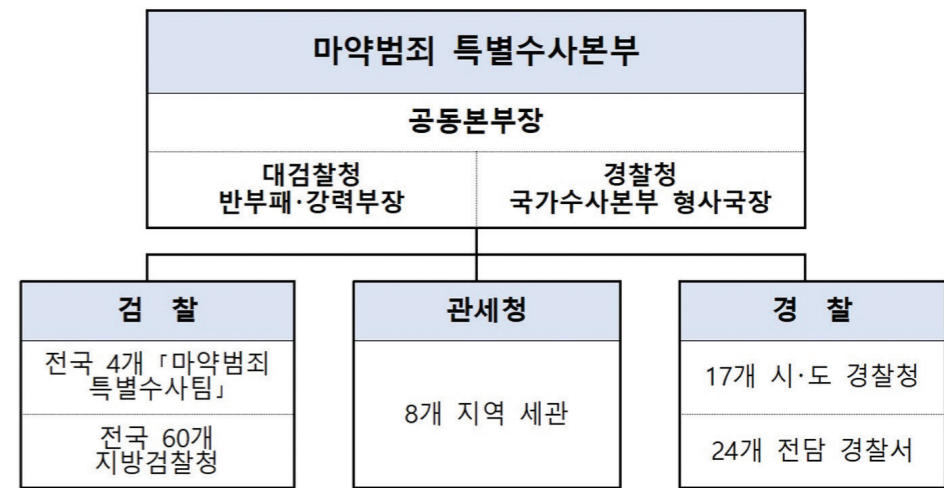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집계된 마약사범은 총 2600여명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했다. 역대 최다 인원이다. 마약류 압수량도 176.9kg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20대 사범은 지난 2017년 전체 15.8%에서 지난해 32.2%로 5년만에 2.4배가 증가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 접근이 가능해진 탓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전국 마약범죄를 대상으로 수사 착수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공동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각종 영장과 송치 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으로 처리하고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을 투입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류

검찰·경찰·관세청 등 전담인력 총 840여명 구성
 지난 1~2월 마약사범 2600명...전년비 32.4% ↑
 구속 수사 원칙...중형과 구형 상소권 행사 방침



용 마약류 제조 및 유통이다.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중형 구형 및 상소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 사범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 이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 피해회복(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안전체계 강화, 학교 주변 예방순찰과 교육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역력 향상’, ‘다이어트 약’ 등 주요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 한 뒤 심층 수사를 통해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글을 내리거나 삭제토록 하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 SNS에 올라오는 마약류 판매와 광고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 글에 대한 시면 심리를 통해 단기간에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유기적인 수사 협조와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서부 해당화 꽃 대결 지난 9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남미리사 경내 서부 해당화 200만 그루가 흙자색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꽃 대결을 만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봄꽃 명소로 잘 알려진 남미리사에는 수양벚꽃도 흐드러져 꽃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 이달 하순이면 꽃봉오리를 머금은 천만 그루의 철쭉이 꽃 잔치를 벌이게 된다.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 관심

광주 동구, 광주다움 통합돌봄...돌봄 전담요원 진료 전 과정 전담

광주 동구는 1일부터 시행에 나선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일환인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가 양육자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입소문이 나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은 동구형 특화 통합돌봄 사업으로 맞벌이 등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동 보호부터 진

료·귀가까지 돌봄 전담요원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하는 동행 돌봄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용 차량으로 돌봄 전담요원이 직접 방문해 아이와 함께 양육자가 원하는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 복약 방법 등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한다. 진료 후에는 양육자가 원하는 장소에 아이를 인도해준다.

이용 대상은 동구 주민으로 만 4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며, 진료·약제비는 이용자 부담이므로 회원 가입 시 예치금은 3만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광주아이키움.kr), 전화(☎ 062-670-0575-0576)로 회원가입 후 원하는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맞벌이 가정 등 아동 돌봄 취약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동구만의 특화 사업인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려
 Made in Honam, Gurye

매실 산수유 오이